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지난 10월 10억달러 감세안 서명식에서 모라 힐리 주지사(단상)와 킴 드리스콜 부주지사, 캐런 스피카 상원의장, 로날드 마리아노 하원의장이 함께 했다. 감세안의 효력은 올해부터 발효된다.(사진 = 주 정부 제공)

2024년 갑진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매사추세츠 세금감면에서 연방 자동차판매사기방지 규정까지
전기차 구입시 구매 시점에 \$7500 세금크레딧 적용 받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2024년이 시작됐다. 새해에도 많은 법들과 규정들이 바뀌어 우리의 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게 된다. 올해의 가장 기대되는 것은 지난해 매사추

세츠 주 의회가 통과시키고 주지사가 서명한 세금감면이다. 연방정부 세금도 있지만 매사추세츠 주세금도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기에 그 부담이 상당부분 덜어질 수 있다는 점은 반가울 수밖에 없다.

세금감면

매사추세츠 세금감면법은 20년만에 처음 있는 세금혜택이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특히 자녀 및 부양가족 텍스크레딧을 두고 '미국 내에서 가장 두둑한 현금 지원' 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높은 생활비와 세금으로 매사추세츠의 유출인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고소득자의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이 힐 >>2면으로 계속

보스톤 단체장 새해 인사

8면에서 11면

뉴햄프셔 여행 후 발열, 기침 하면 레지오넬라 의심해야

뉴햄프셔 호텔 방문했다 레지오넬라 발병 1명 사망, 1명 입원
마운틴 뷰 그랜드 리조트엔 스파 호텔 투숙 후 발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 가을 뉴햄프셔 화이트필드에 위치한 마운틴뷰그랜드리조트엔스파에 투숙했던 여행객 중 매사추세츠 주민 1명 레지오넬라병 진단을 받고 사망했으며 로드아일랜드 주민 1명은 입원 후 퇴원했다.

뉴햄프셔 보건국은 현재 발병원인을 조사 중에 있으며 다른 투숙객의 감염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호텔측은 "모든 호텔이용자들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말하고 현재 보건당국이 이 투숙객들이 어느 곳에서 박테리아 균에 감염됐는지 아직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4면으로 계속

THE PRO 수잔리 부동산
REALTY GROUP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확실한 입찰. 전문적인 권유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아웃사이드 컨설턴트로 성공적 투자 권유

* 조지아 어블린턴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1면에 이어서

리 주지사가 세금감면을 추진한 주된 이유다.

2023년도 세금보고 시부터 부양가족에 대한 크레딧은 가족당 \$180에서 \$310로 높아진다. 또한 2명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던 크레딧이 부양가족 수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4년부터는 부양가족당 \$440로 증액된다.

단기 자본소득세는 현행 12%에 8.5%로 낮아진다. 따라서 하루 및 며칠사이 주식을 사고파는 데이트레이더들에게는 커다란 세금 감면이 주어지게 된다.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은 연방정부의 EITC의 30%에서 40%로 올랐다. 시니어 크레딧도 \$1200에서 \$2400으로 늘렸으며 렌트비 감면액도 \$3,000에서 \$4,000로 늘렸다.

E-ZPass나 MBTA 패스 그리고 컴퓨터 패스, 자전거 사용관련 비용에서 \$750까지 세금 감면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한편, 연방세금보고를 부부가 조인트로 보고하는 경우 반드시 주정부 세금보고도 부부 조인트로 해야 한다.

사냥

매사추세츠 사슴 활사냥 및 터키 사냥 기간이 일부 구간에서 확대된다. 사냥시즌은 존1-9지역(우스터서쪽)까지 일반 시즌보다 2주 먼저 시작된다. 보통 존 9까지의 지역의 사냥은 10월 셋째주에 시작되나 이제는 10월 첫주부터 시작하게 된다.

매사추세츠주는 미국 사냥위반조약에 가입해 다른 주에서 라이선스가 취소되는 경우 매스주에서도 허가가 취소된다.

치과 보험
1월 1일부터 매사추세츠 치과 보험 회사들은 총 보험료 중 치과치료비에 최소한 83%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2022년 주민투표안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것이다.

미 치과협회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들은 이에 따라 더 많은 치과치료비가 커버되게 된다. 일반 건강보험에는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치료에 사용하도록 하는 의료손실비율(Medical Loss ratio)이 있었지만 그동안 치과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아 왔다.

자동차 관련
자동차 판매사기 방지법 시행
올해 7월 30일부터는 자동차소매

사기방지규절 (Combating Auto Retail Scams, CARS)을 시행한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을 딜러의 미끼상술 등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규정이다. CARS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량가격, 금융조건, 리베이트와 같은 주요 정보에 대해 허위 광고를 금한다. 싼 가격으로 광고하고 방문하면 태도를 바꾸는 행위를 금한다.

둘째, 딜러는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최종판매가(full price)를 고지해야 한다. 최종판매가에는 정부에 내는 세금, 등록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셋째, 딜러는 숨겨진 비용(정크 수수료)을 청구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혜택이 거의 없는 중복 워런티, 또는 전기차에 필요없는 오일 교환 서비스 등을 추가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요금이 무엇인지 알고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전기차 구입 연방 세금크레딧 판매 시적용
올해부터 전기차 구입시 주어지는 연방 세금 크레딧 \$7,500이 사는 시점

Make	Model	Model Year	Vehicle Type	Credit Amount	MSRP Limit	Eligibility
Federal Tax Credits for Plug-in Electric and Fuel Cell Electric Vehicles (Vehicles placed in service on or after January 1, 2024 and before January 1, 2025)						
Chrysler						
	Bolt EUV	2022-2023	EV	\$7,500	\$55,000	Check VIN
	Bolt EV	2022-2023	EV	\$7,500	\$55,000	Check VIN
Ford						
	F-150 Lightning (Extended Range Battery)	2022-2024	EV	\$7,500	\$80,000	Check VIN
	F-150 Lightning (Standard Range Battery)	2022-2024	EV	\$7,500	\$80,000	Check VIN
Rivian						
	R1S Dual Large	2023-2024	EV	\$3,750	\$80,000	Check VIN
	R1S Quad Large	2023-2024	EV	\$3,750	\$80,000	Check VIN
	R1T Dual Large	2023-2024	EV	\$3,750	\$80,000	Check VIN
	R1T Dual Max	2023-2024	EV	\$3,750	\$80,000	Check VIN
	R1T Quad Large	2023-2024	EV	\$3,750	\$80,000	Check VIN
Tesla						
	Model 3 Performance	2023-2024	EV	\$7,500	\$55,000	Check VIN
	Model X Long Range	2023-2024	EV	\$7,500	\$80,000	Check VIN
	Model Y All-Wheel Drive	2023-2024	EV	\$7,500	\$80,000	Check VIN
	Model Y Performance	2023-2024	EV	\$7,500	\$80,000	Check VIN
	Model Y Rear-Wheel Drive	2024	EV	\$7,500	\$80,000	Check VIN

Updated: 12/30/2023
Source: Internal Revenue Service

에 주어진다. 지난해까지는 세금보고시에 크레딧이 주어졌다. 그러나 전기차를 판매하는 딜러가 반드시 사전에 연방정부에 등록해야만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말 약 7천여 딜러가 세금크레딧 혜택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됐다.

editor@bostonkorea.com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보스톤다이내믹스, 현대 4억달러 투자로 AI 집중 개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가장 정교한 로봇을 만들어온 보스톤다이내믹스가 AI 전문 연구소를 캔달스퀘어에 설립했다.

현대로부터 4억달러를 투자받은 보스톤다이내믹스 AI연구소는 로봇산업의 선두주자인 보스톤의 명성을 굳건히 지키고 최첨단 AI 소프트웨어와 로봇이 만나는 지구촌 혁신의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로 설립됐다.

비영리단체인 이 연구소는 보스톤다이내믹스의 창업자였던 마크 라이벳이 이끌고 있으며 지난 2022년 8월 개소한 이래 약 150여명의 인재들을 고용해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향후 200여 인재를 더 채용할 계획이다.

라이벳 대표는 이 연구소의 목표가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며 생산비용 절감, 몇 % 개선 등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과거 트랜지스터, 레이저, 태양전지 등을 발견했던 벨 연구소처럼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의 벨 연구소가 되겠다” 는 계획이다.

라이벳이 보스톤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3가지 분야에 주로 집중한다. 첫

째는 로봇의 시각인지 능력 개발이다. 로봇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무엇을 하는지 알아채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번 새로운 임무를 프로그램으로 짜서 제시할 필요성을 없앤다.

두번째 분야는 로봇의 정밀한 손 움직임이다. 지금까지 약 50여년간 로봇이 물건을 집어 이를 다루는 것을 연구해왔다. 라이벳 대표는 “여전히 인간이나 동물이 물건을 다루는 방식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 고 진단했다.

세번째 집중 분야는 물리적 AI 분야다. 인공지능과 로봇을 결합해 주위 환경을 학습하는 것이다. 좀더 재빠르게 행동하며 주위 환경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다.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은 로봇이 카메라를 통해 테이블 위에 있는 사과를 인식하고 이를 집어서 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돕는다.

라이벳 대표는 “이를 하기 위해서는 사과의 무게, 표면의 마찰, 잡았을 때 이를 부서지게 하는 압력의 크기 등을 알아야 하며 이것을 조합해 사과를 잡게 된다” 고 밝혔다.

사실 이와 같은 것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계란을 집어 그릇에 담는 것을 이미 실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 새로운 영역은 아니다.

이 같은 기술의 개발은 4억달러를 투자한 현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스톤글로브는 지적했다. 현대는 현재 모션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움직이고 주행할 수 있는 UMV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라이벳 대표는 그러나 연구소가 결코 현대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소가 아니라고 밝혔다.

라이벳 대표는 지난 한해 동안 인재모집에 집중했다. 보스톤다이내믹스의 CTO 알리찌, 찰스타운로보

틱 스타트업 라이트핸드로보틱스의 공동창업자인 라엘 오드너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케임브리지 연구소에는 약 11명의 연구 교수들이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10개의 다른 대학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하나는 이 연구소 인근에 위치한 MIT 컴퓨터 사이언스엔 AI연구실이다.

보스톤 다이내믹스와 테슬라의 로봇 경쟁은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와 동부의 보스톤과의 본격적인 로봇분야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노랑1월5일 AMC 보스톤커먼서 개봉

'노랑' 개봉 14일째 1위, 누적 379만명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영화 '노랑: 죽음의 바다'가 AMC 보스톤커먼서에서 1월 5일 금요일부터 개봉 상영된다. 상영 시간은 오후 12시 15분과 6시 두 차례다.

영화 '노랑: 죽음의 바다'(감독 김한민)는 3일(한국시간) 기준 개봉 14일째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켰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집계에 따르면 '노랑: 죽음의 바다'는 지난 2월 7만971명이 관람해 누적 관객수 379만9385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노랑: 죽음의 바다'는 지난해 12월 20일 개봉 후 14일 연속 정상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였다.

'노랑: 죽음의 바다'는 이순신 장군이 1598년 노랑 앞바다에서 일본 수군과 벌인 마지막 해전인 노랑해전을 다룬 이야기로, 배우 김윤석이 이순신 장군을 연기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2023년 <국제협력 분야 10대 과학기술 뉴스> 선정

‘한·미 양자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 서명 등 글로벌 과학기술 파트너십 체결 ‘한·영 비즈니스 포럼’ MOU 체결, 협력 다각화 기대 커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태식, 이하 과총)가 2023년 ‘국제협력 분야 10대 과학기술 뉴스’ (이하 10대 과학기술 뉴스)를 발표했다. 과총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한 해의 주요 연구개발 성과와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과학기술 이슈를 구성된 10대 과학기술 뉴스를 2005년부터 매년 선정·발표하고 있다. 선정 과정에는 과학기술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엄정한 심의

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과총은 19개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에서 추천 받은 뉴스를 대상으로 최종 심의를 거쳐 국제협력 분야 10대 과학기술 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제협력 분야 10대 과학기술 뉴스로 ▲ [한·미 정상회담] 양자과학기술 협력공동성명서 서명 ▲ [무탄소(CF)] 한·미 ‘청정에너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 [한·영 비즈니스 포럼] 한·영 비즈니스 포럼, 양국 기업

MOU 체결 ▲ [한·스웨덴] 기술사업화 포럼, 스타트업 유럽 진출 돕는다 ▲ [덴마크] 평택시, 수소도시 및 수소모빌리티특구 국제협력 ▲ [한·핀란드] 외교 50주년 기념,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 [한·유럽] 벨기에에 한·유럽 양자과학센터 개소 ▲ [한·중국] 한중 무역·투자 박람회 개최 ▲ [한·중국] 중국 국가급 기술교류 포럼, 첫 한국기관 주최·주관 ▲ [한·UAE] 원전·수소·방산 30여건 MOU 체결이 선정됐다.

국제협력 분야 10대 과학기술 뉴스에서 ‘양자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 서명’ 뉴스가 주목받았다. 양자과학기술 후발국인 우리나라가 기술 추격을 가속화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양자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였다.

과총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발표되는 과총의 10대 뉴스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쟁력과 미래 가능성을 조망하는 지표가 되길 바란다” 며, “특히 국제협력 분야 10대 뉴스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보여준다. 기술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전문가 교류 등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이 전파되어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기대한다” 고 전했다.

한편, 과총은 지난 26일 ‘이학, 공학, 농수산, 보건의료, 종합’ 등 5개 과학기술 학술분야와 과학기술정책분야 등을 더한 6개 분야에서 ‘10대 과학기술 주력분야 주요뉴스’와 각 분야별 10대 뉴스를 발표하였다.

뉴햄프셔 여행 후 발열, 기침하면 레지오넬라 의심해야

▶▶ 1면에 이어서
이번 레지오넬라 발병은 뉴햄프셔에 발생한 두번째 집단 발병 사례다.

지난 3월 NH 보건당국은 메레디스의 캠프장에서 2021년 가을과 2023년 1월 사이 총 5명의 캠프 이용객들이 레지오넬라 병에 감염됐다. 감염된 5명은 모두 메레디스우드앤클리어워터캠프그라운드(Meredith Woods and Clearwater Campground)에 야영한 후 발병했으며 5명 모두 회복됐다.

지난해 12월 16일 보건당국은 병원에 접촉해 폐렴환자들의 발병원인이 레지오넬라균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환자들에게 발병 14일 전에 뉴햄프셔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을 알렸다.

레지오넬라는 폐렴 증세를 띠며 발열, 기침, 호흡곤란, 근육통, 두통 그리고 폐렴 증상을 나타낸다. 병원 입원을 요할 정도로 심한 질병이며 사망률도 10%에 달한다.

박테리아 감염으로 레지오넬라 병이 발병하며 주로 식수, 토양 그리고 오염된 물이 증발해 이를 호흡했을 때 감염될 수 있다.

대부분의 감염은 아주 불특정하게 발생하며 호텔, 아파트, 병원 등의 공동 사용 물과 관련돼 발생한다.

hsb@bostonkorea.com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라티 프라바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이 백악관에서 한미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출처= 과기정통부)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 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일본 지진,해일 관련보도서 뉴욕타임스만 달라

동해 표기 관련 미국 언론들 각기 다른 기준 적용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을 소식을 전한 미국 언론이 동해 표기 관련 각기 다른 접근을 보였다. 뉴욕타임스는 1일 웹사이트 보도에서 일본 지진과 해일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해(Sea of Japan)란 단어를 헤드라인은 물론 지도에서도 일절 표기 또는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기사에서 일본 지진청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듯 'Japan Sea' 라고 표기했다. 반면 보스톤글로브는 AP뉴스를 받아 게재하면서 제목에서부터 일본해(Sea of Japan)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글로브는 이후 AP의 후속 보도로 교체해 일본해를 헤드라인

에서 없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도 표기에서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아래 괄호치고 동해(East Sea)라고 표기해 구글의 표기와 동일하게 표기했다. 기사에서는 일본 지진청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Japan Sea' 라고 표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도와 본문에서도 일본해(Sea of Japan)이라고 표현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이번 보도 기사는 주로 아시아에 주둔한 한국계 또는 일본계 기자들이 작성했으며 일부는 한국계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에서 일본해(Sea of Japan)란 단어가 그대로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2023년 매사추세츠주 떠나는 사람 더 많아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 많은 주 미국 내 7위 기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3년 매사추세츠주는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다는 조사가 결과 나왔다. 유나이티드뱅크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는 미국 내 유출인구가 많은 주 7번째에 해당했다. 매사추세츠에서 이삿짐 회사인 유나이티드사가 담당한 이사의 56.6%가 주를 떠나는 이사였다. 주를 떠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직장으로 인한 이사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다음은 가족을 위한

이유가 19%로 뒤를 이었고 18%가 은퇴로 인한 이유였다. 그러나 이미 잘 알려진 높은 생활비로 이사한다고 말한 응답자는 2%밖에 되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유출하는 인구들 중 소득 15만달러 이상 되는 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매사추세츠주는 2023년 미국내에서 인구유출이 많은 주 7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에도 미국내 8위였다.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주는 뉴

저지주였으며 그다음은 알리노이주가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노스다코타, 뉴욕, 미시간, 캘리포니아 순이었다. 버몬트는 가장 인구 유입이 많은 주 1위를 차지했다. 로드아일랜드도 5위로 유입이 많은 주에 선정됐다.

2023년 인구 유출이 많은 주

- New Jersey
- Illinois
- North Dakota
- New York
- Michigan
- California
- Massachusetts
- Kansas

2023 인구유입이 많은 주

- Vermont
- Washington, D.C.
- South Carolina
- Arkansas
- Rhode Island
- North Carolina
- South Dakota
- Alabama
- New Mexico
- West Virginia



HAPPY NEW YEAR

2023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집에서 많은 수고를 감당해내신
한인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지난 한해 여러분과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올 한해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 임직원 일동

보스톤 **코리아**



루씨 루이준 보스톤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1월 1일 보스톤시의회 의장선거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루씨 루이준 시의장은 의회의 품격을 유지해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루이준 의장은 전임 에드 플린 시의장의 임기에 이어 1년 동안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해 보스톤 시의회는 캔들라 라라 의원 및 리카르도 아로요 의원의 스캔дал로 얼룩졌으며 이들은 9월 예비선거에서 모두 탈락했다.

루이준 시의장은 보스톤글로벌과의 인터뷰에서 “의회는 같은 시의원 동료들 불신함 없이 강력하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 고 밝혔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시의회 내에서 많은 강력한 비난이 오가는 것을 목격했다. 이제는 이 시의회내에서 허용되는 안된다. 이 같은 실천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루이준 의장은 “신뢰는 언제나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 면서 의회는 유권자들의 신뢰를 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임기동안 보스톤의 주택, 교육 그리고 쓰레기 매니지 시스템 등 매력적인 이슈들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이준 의장은 페뉴얼홀에서 열린 시의원 선서 이후 이어진 첫 회의

에서 의장으로 선출됐다.

가브리엘라 콜레타 의원이 루이진 의원을 추천했으며 전임 시의장인 에드 플린 의원은 줄리아 메지아 의원을 추천했으나 메지아 의원이 고사하자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시의장은 위원회를 만들어 의원들이 소속되도록 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시장이 공백인 경우 시의장이 이 역할을 맡는다.

미셸 우 시장은 루이준 의장의 선출을 축하하고 앞으로 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루이준 의장은 광역구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의 대선 캠프에서 상임 변호사 역할을 담당했었다.



이번 주말을 겨울 첫 폭설 예보...향후 변동성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12월에 거의 눈구경을 하지 못했던 보스톤 지역에도 이번 주말 폭우와 폭설이 찾아들 전망이다.

기상청은 2일 아직 이른 예보라는 단서는 두었으나 매사추세츠 등 뉴잉글랜드 남부 지역에 폭설과 폭우 그리고 폭풍이 찾아들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눈은 토요일인 6일 밤 9시에서 일요일 새벽 3시 사이에 내리기 시작하며 바람도 시속 28마일로 거세게 불 전망이다. 눈은 일요일에 종일 계속되며 바람도 40마일로 더 강해진다.

보스톤 겨울 진눈개비 및 눈믹스가 항상 그렇듯 비와 눈의 경계

선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적설량이 결정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비교적 정확한 적설량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케이프코드연안에는 비가 보스톤 등지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만약 비가 동쪽 바다 선상으로 밀려나는 경우 보스톤에 더 많은 눈이 예상된다. 보스톤 글로벌의 엡스틴은 3-6인치 정도의 적설량을 예측했지만 여전히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는 입장이다.

기온은 토요일 밤 화씨 27도로 낮겠지만 토요일 낮에는 37도까지 올라간다.

hsb@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중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2024년 미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5가지 요소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2023년 미 주식시장이 23% 상승을 기록하며 마감했다. 지난해 말 S&P 500지수가 2년만에 최고치로 상승하면서 많은 긍정적인 전망이 2024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연준이 그동안의 금리인상을 멈추고 점차적으로 그동안 상승으로 인한 잠재적 침체의 위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그동안의 금리인상이 시차를 두고 미 경제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지난 2023년 미국시장이 커다란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완전히 틀린 전망을 내놓았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중소형 은행의 붕괴와 급격한 이자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의 S&P 500은 24%나 치솟았던 것을 목격했다. 따라서 분석의 합리성과 그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2024년 주식시장을 좌우 할 5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

연준이 2024년 중반부터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편승해 최근 주식은 상승세를 보여왔다. 주식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내년 금리를 150베이스포인트

(1.5%)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시장은 금리인하에 대한 효과를 선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S&P 500은 지난 2022년 1월 3일 최고치에 0.5% 차이로 다가섰다. 이는 지난 12월 19일 수십명의 증시분석가들이 내놓은 2024년 말 S&P 500 도달 지수 4,833에 약 1%가량 낮은 수치다.

빅테크의 성장세

올해 증시의 상승의 대부분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7개 빅테크회사, 소위 매그니피센트 7이 이끌었으며 이들의 기여분은 전체 증시 상승의 64%를 차지한다.

이들 7개 회사는 위의 두개 회사를 포함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그리고 테슬라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집계된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 매그니피센트 7의 2024년 성장율은 2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핵심은 회사의 성장이 주가에 얼마나 녹아드는가 하는 것이다.

루이스 네이블러는 6개 주식은 2024년에도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애플은 첨단 제품이 없어 이 인공지능 추세의 가장자리에 놓여 있다고 적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현역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한 해에는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은 강세를 보여왔다. 주식시장 알마네에 따르면 1949년 이래 S&P 500은 선거의 해에 평균 13% 상승했다. 그러나 현임 대통령이 출마하



지 않고 치러진 선거해의 경우 S&P 500은 1.5% 하락세를 보였다.

제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전형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내놓거나 감세정책 및 경기진작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아시아 리스크: 일본은행, 중국 및 인도 선거

니케이 225주식 평균은 일본은행의 초약세안 정책으로 2023년 한해동안 30년만에 최고로 상승했다. 일본은행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경제 전문가 3분의 2는 2007

년 4월이래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는 중국 주식시장은 또 한번 실망스런 시장이었다. 투자자들은 2024년 전년대와 경제성장 계획에 주목하고 있으며 경제 촉진 정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도는 경제 전망이 아주 밝다. 최근들어 대형 제조업체 계약을 체결하고 인프라 투자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의 대안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 금리 정책

스톡스유럽 600지수가 2년 최고

치에 이르렀다. 경기 순환주들은 중국의 경기촉진 정책이 여부에 따라 추가적 상승 여부가 결정된다. 유럽 경제의 약화가 예상됨에 따라 분석가들은 2024년 약 4%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 시장은 유럽중앙은행이 4월께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유럽 주식에 플러스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행은 대부분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행보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I 2024 신년사



김재휘
주보스턴총영사관
총영사

뉴잉글랜드 동포여러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2023년을 돌아켜 봅니다.
대통령 내외빈의 보스턴 방문, 샌더스홀에 올려퍼진 우리 음악, 동맹 70주년 기념 행사들, 쾌청한 가을날의 김치페스티벌 그리고 송년회까지 많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뉴잉글랜드 동포사회는 작년 한해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성원 속에 내실있는 한해를 보냈습니다.
2024년은 더욱 활기차고 더 많은 일들을 이루는 한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뉴잉글랜드 동포사회는 세대를 초월하여 더욱 다양하고 건강해 질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활발히 활동하여 동포사회와 현지사회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3월 보스턴 미술관에서 시작되는 한류 전시회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일 것이며, 2024년 한해 동안 개최될 다양한 문화예술, 학술, 첨단기술 등 행사를 통해 동포사회는 보다 창의적이고 포용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총영사관은 올해에도 동포사회의 일원으로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과 권익신장을 최우선시하면서, 동포사회의 필요와 수요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추구할 것이고, 모국의 높아진 위상을 모두가 체감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포함, 동포 여러분들의 모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사추세츠 뿐 아니라 로드아일랜드, 메인, 버몬트, 뉴햄프셔 동포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뵙고 더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은 힘과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입니다.
뉴잉글랜드 한인사회가 갑진년을 맞아 푸른 용과 같이 비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수
매사추세츠 한인회
42대 회장

존경하는 매사추세츠 한인동포 및 가족 여러분, 2024년 갑진년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갑진년은 푸른 용의 해입니다. 용은 예로부터 풍년과 복을 가져오는 좋은 존재였습니다. 계묘년이 행운의 해였다면 갑진년은 이 행운을 이어서 수확을 걷는 풍년, 그것이 커질수록 복이 커지는 그런 시기일 것입니다.
2024년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새로운 도전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더욱 함께 뭉쳐 보다 좋은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2023년 2-3세대 모으기에 중점을 두었던 저희 42대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새로이 시작했던 K-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로 2-3세대 참여의 도화선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인 행사를 다른 주류사회의 큰 행사로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23세대는 우리의 미래임을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2024년에도 더욱 크게 젊은이들과 함께 미국 주류사회에 도약하는데 힘쓰는 한인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약을 위한 도전에 힘을 보태주실 모든 분들에게 애김없는 지원으로 풍년과 복을 현실화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행동이 결여된 지성과 소리는 결코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2024년에는 다함께 한인사회가 발전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 나갑시다.
아울러 새해에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박선우
뉴햄프셔 한인 회장

존경하는 동포여러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늘 보내는 한 해는 아쉬움을 남기고, 맞이하는 새해는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든지 지난해보다 더 나은 것이라 믿으며, 모두 다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본회는 다양한 사업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연초 '설날' 을 맞이하여 '보스턴 노인회'를 초대하여 만찬과 함께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아울러 주지사는 이날을 '한인의 날' 로 선포하여, 동포들의 헌신과 공로와 우리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추모식을 주립현충원에서 많은 참전용사들을 모시고, 연방과 주정부 고위 관계자 및 주류언론들과 함께 성대히 치루었습니다.

또한 'BIPOC of NE'와 함께 공동 개최한 다민족문화축제는 여러 국가와 민족들의 다양한 전통문화의 교류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본회는 오랫동안 유관단체와 긴밀히 공조하여 모국의 국적법/병역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들의 권리는 국회에 의해 묵살되고 있습니다. 2022년 졸속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불이익은 여전하며, 무엇보다도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회는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본회는 올해도 동포들의 위상제고와 권익신장을 위해 그 임무를 다 할 것입니다. 예년과 같이 주지사의 '한인의 날' 선포와 '떡국잔치'를 필두로,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추모식 및 BIPOC of NE와 다민족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소수계의 권익신장과 역량강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동포여러분, 특히 올해는 모국과 미국에서 위정자들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공공복리를 위해 '누구를 왜' 선택하는 귀중한 주권을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국제질서의 변곡점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모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동포사회의 진일 보된 역량과 자질은 모국의 번영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우리 한인회는 모든 동포들의 참여와 화합으로 그 역량과 자질을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안전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한문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지역협의회 회장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가는 시발점은 보스톤에서부터:
2024년을 맞이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는 ‘재밋고 신나게’ 라는 기치하에 ‘민주평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구하는 점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재외 한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북한 인권 개선 및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노력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보스턴 영사관과 ▶▶ 9면으로 계속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래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I 2024 신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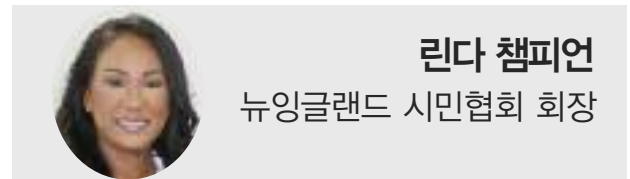
협조와 조율을 바탕으로 보스턴 지역내 각 단체와 유기적 공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둘째, K-pop, K-culture, K-beauty, K-food 등의 한류의 붐을 조성하고 더욱 발전 시킬 수 있는 활동 사업을 기획하고 발전 시키겠습니다.

셋째, 평등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해서 미국내에서의 결집과 협력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으로 애국하는 길이 된다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가는 시발점은 보스턴으로부터 시작되리라 생각합니다.

2024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크고 놀라운 축복의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린다 챔피언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회장

KACL-NE의 신임 회장, 린다 챔피언 인사드립니다. 이사회 및 양미아 신임 이사장을 대신하여, 갑진년 새해 인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양미아 이사장과 크리스틴 리(Christine Lee)사무총장과 함께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민협회는 이미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의 Green Wood Dragon의 해를 맞이하여, KACL-NE의 모든 이사, 임원들은 제각기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수입국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공과 K-Pop, K-Drama, 한국 음식에 대한 미국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사회, 선출직 공무원, 지역사회 리더십은 우리의 봉사 능력과 리더십 능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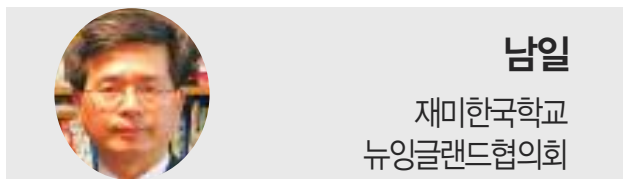
한국계 미국인은 지역 사회 참여와 정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종차별의 시스템을 극복하고, 협력의 기회를 창출하며, 우리의 아이들과 삶, 그리고 우리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결정이 내려지는 모든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한국계 흑인 여성으로서 저는 어머니의 조국과 문화에 대한 지지와 사랑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KACL-NE를 이끌 수 있게 된 이 기회를 기꺼이 받아드립니다.

KACL-NE 협회의 리더십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미국 사회에 한인 커뮤니티가 좀 더 가까이 미국의 정보, 자원 및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적극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양미아 시민협회 신임이사장은 KACL-NE 커뮤니티와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모금을 늘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KACL-NE를 이민 접근, 유권자 등록 및 지역 사회 참여 등 이경해 전 회장의 비전을 복원할 것입니다.

작년보다 시민협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 격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원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하셔서 회원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남일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

지난 한해 동안 뉴잉글랜드 5개 주에 속한 여러 한국학교들을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의 모든 한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동포 2세 교육을 위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각 학교 교장 선생님 및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는 각 학교의 운영 및 제반 경제적 여건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기간이었지만 재외동포청과 보스턴 총영사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동포 2세들의 한글 교육은 물론 문화, 역사 및 정체성 교육을 위해 다시 일어나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자 각고의 노력을 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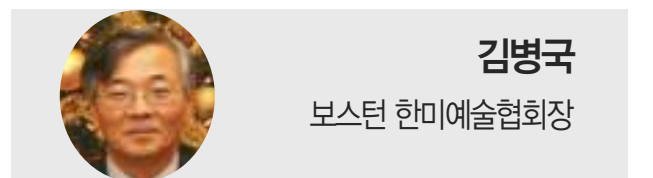
외교부와 보스턴 총영사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제 3회 동해, 독도 지명표기 조사활동 공모전 을 개최하면서 지도 교안 공모 부문을 추가하여 1백명이 넘는 작품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전-후반기 지역 한국학교 교사 대상으로 한 교사 연수, 2023년도 어린이 글짓기 및 손글씨 대회 및 어린이 사생대회와 5년 만에 재개된 '뉴잉글랜드지역 어린이 동요합창제' 사업들을 뉴잉글랜드지역 동포 여러분들의 격려 및 후원 아래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오인식 이사장과 선출 이사 여러분, 강상철 부회장(보스톤 한국학교), 김소희 총무, 이정설 간사(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김성희 간사(보스톤장로교회 한국학교) 순연주 간사(우스터 한국학

교) 등 회장단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공적인 행사들로 개최할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희망에 찬 2024년 갑진년 새해를 시작하며 보스턴 총영사관 김재휘 총영사님을 비롯하여 지역의 여러 단체 및 동포 여러분,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는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협의회는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동포 2세대들과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현지인들에 대한 한글교육과 한국의 역사,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정진할 것입니다.

뉴잉글랜드 지역 모든 한인 동포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병국
보스턴 한미예술협회장

"설"은 '새롭다'는 뜻으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경주의 '설벌'이 '설'의 '새롭다'에서 新, '벌'은 '벌릴' 羅羅한역되어 新羅라는 이름이 되었고 설벌을 음역한 것이 서라벌 (徐羅伐)이라고 합니다. 낮이 설다는 표현에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2024년 갑진년을 열며 한미예술협회는 보스턴 미술관에서의 음력설 행사를 시작으로 봄에는 비대면 한국 전통 심포지움, 문태국 첼로 독주회, 그리고 콩코드 도서관에서 한국 가정의 달 행사 및 한글 서예 전시를 합니다. 또한 10월에는 연례 협회 전시회와 더불어 보스턴 교향악단 부지휘자 얼리 (Earl Lee) 와 테너 박승주씨를 초대하는 조단홀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민 분들께서 이 행사들을 통하여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느끼며 외국생활에서 잘 접하지 못하는 우리 문화체험을 하시며 낮이 설은 많은 분들과 교류하는 풍성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난 해 런던에서 열렸던 "한류 (Hallyu! The Korean Wave)" 전시가 3월말부터 7월말까지 보스턴 미술관으로 옵니다. 전시 뿐만 아니라 여러 한국 문화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 보스턴 미술관에 많은 한인분들의 방문과 참석을 바랍니다.

올해도 꾸준히 한미예술협회를 아껴 주신 이사님들, 후원자님들 그리고 여러 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한인 여러분들, 복된 한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 11면으로 계속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hony's Parish of the Holy Spirit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평일 미사
오전 9시 30분 (English)	화: 오전 10시 30분
오전 11시 (Korean)	목: 오후 7시 30분
오후 4시 30분 (Korean)	매달 첫토 오전 10시 30분

연락주세요:
stadparish@gmail.com / 617-558-2711

46 Ash St, Newton MA 02488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stadparishchurch.org
www.facebook.com/stadparish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HAPPY NEW YEAR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福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청룡(靑龍)의 해)가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 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일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새해에도 차별화된 전문성과 노하우,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로 부동산 매매/임대/투자
관련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이슨 전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Vice President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COMPASS

I 2024 신년사



김영훈
한국과학기술인협회
51대 뉴잉글랜드 지부 회장

안녕하세요. 한국 과학 기술인 협회 뉴잉글랜드 지부에서 인사 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 여러분과 가정 모두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풍성한 결실로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과학 기술인 협회 뉴잉글랜드지부는 이제 50년의 역사를 지나, 완숙의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스톤과 근교에 계시는 여러 재미 한국인 과학자분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했고, 많은 분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날 미국에서 첨단과학이 미래를 만든다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 많이 공감하며, 그중의 한국계 과학자분들의 모임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잉글랜드지역은 교류와 소통의 중심지 중의 하나로, 특히나 과학 기술의 허브로 자리잡았습니다. 지난해에 KSEA에서 주최했던 수학 경시대회는 아직 온라인 - 비대면으로 개최되었지만, 예년과 다름없이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주었습니다. 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수학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기회가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해부터는 모두 대면(in-person)으로 수학 경시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추후에 공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또한KASBP (재미 제약인협회) 보스톤 지부와와의 연계를 통해 현재에 계신 과학자 기술자분들 모임을 좀더 활발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이벤트를 통해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관심과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새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민선
국제선 회장

친애하는 보스톤 한인 여러분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하여 새해 인사 드립니다.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통하시며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2024년 국제선 보스톤지부 회장으로 일하게 된 허민선입니다.

저희 단체 명칭은 국제결혼가정선교전국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of Inter-cultural Family Mission)입니다.

저희 단체는 한인 여성으로 불우한 환경 속에 계신 분들을 돕고 있으며, 소외된 여성분들에게 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갈 곳을 제공 하는 단체 입니다. 미국 웰터의 경우 음식, 언어, 그리고 문화적 충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제선 쉽터는 이 같은 문제점이 없이 될 곳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본부는 세인트루이스(St Louise Mo)에 있고 미국 전역에 22개 지부가 있습니다. 본부에는 15분이 거주 하고 있으며 봉사자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건축을 증축하는 도중에 있으며 들어 오실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8년이란 세월 동안 보스톤 한인 여러분의 사랑과 물질, 격려는 그 어느 주 보다 더 뜨겁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의미있는 물질은 한 인간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있다는 걸 압니다. 나누어 주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4년 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우혁
뉴잉글랜드 재향군인회회장

다산했던 토끼는 꼬리를 감추고 청룡이 얼굴을 내밀고 인사를 드립니다.

갑진년 새해 아침에 하늘에 복 많이 받으세요

콩과 보리를 구별 못하면 숙맥이라고 합니다. 숙은 콩이요 맥은 보리인데 크기로 보나 모양으로 보나 확연히 다른 곡식인데 눈으로 보고도 분별을 못하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렇게 콩과 보리를 구별 못하는 정치인들이 숙맥이라고 욕을 먹습니다. 북한에 3대가 한국에 3대 대통령을 우지 자지해도 말

도 한마디 못하는 시대가 있었으니 정치인들이 불쌍하다 못해 한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은 날부터 왜 이천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녀야 했을까요 나라가 망하면 가장 비참한 건 백성 즉 국민이랍니다

바야호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숙맥의 시대에 살았지요 김대중은 김일성에게 끌려다녔고 노무현이는 김정일이 문제인은 김정은이 끌고 다녀도 문제를 제기하기는 커녕 그들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개관으로 만들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숙맥같은 정치인들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다시는 숙맥 같은 민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위지는 날씨에 몸건강들하시고 신년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한순용
보스톤 한미 노인회 회장

2024 갑진년의 해가 떴습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이 새로운 청룡의해를 맞이하여 모두 희망에 찬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워 하루 하루 살아가다보면 절반은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요즘을 천천히 소박한 것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보스톤 한미 노인회 회원님들과 함께 사랑 그리고 배려가 가득찬 2024년 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보스톤 한미 노인회도 사랑의 후원과 관심에 힘입어 보스톤 동포사회에 더욱 모범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노인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뉴욕증시, FOMC 의사록에 하락...나스닥 1.2% ↓ 마감

경제 불확실성에 "추가 긴축 선회 가능성"도 여전히 시사...12월 의사록

(뉴욕=연합뉴스) 운영속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낙폭을 확대하며 하락했다.

3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84.85포인트(0.76%) 하락한 37,430.19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8.02포인트(0.80%) 떨어진 4,704.81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73.73포인트(1.18%) 밀린 14,592.21로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 지수는 연초부터 이를 연속 1% 이상 하락했다. 또한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 전후 마지막 5거래일과 연초 2거래일간 S&P500지수는 0.9%가량 하락해 산타클로스 나오지 않았다. 해당 기간 지수가 하락한 경우는 2015년~2016년 연말 연초 이후 처음이다.

애플의 주가 하락에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악화한 데다 10년물 국채금리도 4%까지 오르면서 기술주에 악재가 되고 있다.

오후에 발표된 12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주가는 낙폭을 확대했다.

이날 발표된 12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기준금리가 고점이거나 고점 부근이라는 데 동의했다. 또한 올해 중 금리 인하기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체로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신중하고 지표에 의

존하는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인플레이션이 위원회의 목표를 향해 분명히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갈 때까지 정책이 한동안 제약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의사록은 전했다.

또한 "참석 위원들은 향후 경제 상황이 추가 금리 인상을 적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동안 제약적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과 추가 금리 인상 위험을 강조한 점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할 위험을 높인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도 이날 한 연설에서 "자동 조정장치(autopilot)'는 없다"라며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완화하는 발언을 내놨다.

그는 올해 금리 조정의 속도와 시기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망에 달렸으며 "예측은 어렵고, 조건은 항상 변화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접근 방식도 또한 그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바킨 총재는 "연착륙이 점점 가능해 보이지만, 결코 당연한 일은 아니다"라며 경제가 강력한 성장과 함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국채금리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까지 오르면서 12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오름폭을 축소하며 3.91%까지 떨어졌다. 2년물 금리는 4.34%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보



제롬 파월 연준의장

였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대체로 부진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기업들의 채용공고 건수는 3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노동부의 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채용공고 건수는 87만 건으로 직전월보다 6만2천건 감소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집계하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여전히 위축세를 나타냈다.

ISM의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4로 집계돼 전월의 46.7보다 높았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47.2도 소폭 상회했다. 그러나 수치는 여전히 50을 밑돌아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임을 시사했다.

S&P500지수 내 부동산 관련주가 2% 이상 하락했으며, 임의소비재, 산

업, 자재, 기술 관련주가 모두 1% 이상 떨어졌다. 유가가 3%가량 급등했다는 소식에 에너지 관련주가 1% 이상 올랐다.

월트디즈니의 주가는 행동주의 투자기업 벨류액트 캐피탈이 디즈니의 이사회를 지지하는 데 동의했다는 소식에 1% 이상 올랐다.

전날 3% 이상 급락했던 애플의 주가는 이날도 0.8%가량 떨어졌다. 번스테인은 애플의 주가가 고평가돼 있으나, 현 수준에서 크게 하락할 위험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포드의 주가는 F-150 리콜 소식에 3% 이상 하락했다.

제록스 홀딩스의 주가는 직원 15%를 감원한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12% 이상 하락했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이 원하는 만큼 연준이 빠르게 돌아서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잭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브라이언 멀베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마켓워치에 "12월 시장을 움직인 단기 모멘텀은 주로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지만, 사실상 경제 지표는 시장이 원하는 만큼 빠른 방향 전환(pivot)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말해 "근원 PCE 가격지수가 여전히 2%를 웃돌고 있어 금리가 현재 가격보다 더 오래 더 높게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엠티스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존 루크 타이너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지난해 말 두 달간 우리가 본 것은 금리와 경제에 나타날 최고의 잠재적 결과에 대한 낙관론이다"라며 "그것은 명청할 정도로 좋은 것이었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에 여러 차례 금리가 인하될 만큼 지표가 빠르게 약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사람들
www.huram.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해의의료시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최단기 퇴진' 하버드 첫 흑인 총장... '유대인 파워'에 밀려

반유대 논란에 표절 의혹 결정타...5개월만에 불명예 사퇴 표현의 자유·인종·성별 등 '문화전쟁'으로 번져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반(反)유대주의 논란,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던 클로딘 게이 미국 하버드대 총장이 2일(현지시간)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7월 취임 후 불과 5개월여 만이다. 1636년 하버드대 개교 이후 최단기 퇴진 기록이다.

게이 총장은 미국 최고 명문 하버드대의 약 400년 역사상 첫 흑인 총장, 두번째 여성 총장으로 주목받았다.

학교뿐만 아니라 미 재계와 정계까지 확산한 거취 논란 속에서도 하버드대 이사회는 지난달 그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지만, 결국 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을 택했다.

표절 논란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지만 고액 기부자들의 압박, 진보 성향의 대학을 겨냥한 문화 전쟁의 진통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하버드대 기부자들 사이에 게이 총장에 대한 지지가 무너진 것이 그의 사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대학 총장은 지적 공동체의 지도

자일 뿐만 아니라 캠퍼스의 행정가, 그리고 기금 모금가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하버드대는 미국 내 어느 대학보다도 막대한 507억달러(약 66조 4천억원)를 굴린다.

재정 면에서 최근 하버드대의 '성적'은 그리 좋지 않다. 지난해 스탠퍼드대의 기부금 수익률은 44%에 비해 하버드대는 29%에 그쳤다.

하버드대의 유대계 고액 기부자들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고조된 학내 갈등 속에서 게이 총장이 학생들의 반유대주의 발언에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며 기부 철회의 시를 밝혔다.

특히 유대계 헤지펀드 거물 빌 애크먼은 게이 총장을 여러 차례 공개 저격했다. 게이 총장이 신속하게 테러 행위를 규탄하지 않아 대학가에 반유대 물결이 확산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캠퍼스 이념화'가 문제라며 게이 총장의 자격을 문제 삼기도 했다.

사퇴 압박은 지난달 5일 미 연방 하원이 아이비리그 대학 유대인 혐오 논란과 관련해 개최한 청문회 참석 이후 커졌다.

게이 총장은 '유대인을 학살하자'

는 일부 학생들의 주장이 대학 윤리 규범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끔찍한 발언"이라면서도 "하버드는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분명한 입장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중됐다.

이후 게이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교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했다.

보수 성향의 온라인 매체 워싱턴 프리 비컨은 최근 몇주간 게이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달 1일에도 6건의 추가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 이 매체의 주장에 따르면 게이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은 약 50건에 달한다.

다만 게이 총장의 한 측근은 CNN에 그가 새 표절 의혹 보도가 나오기 전인 지난주 말 사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하버드대 지원자가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동문 기부자들의 실망감을 키웠다고 NYT는 전했다.

한국의 수시입학에 해당하는 조기 전형인 '얼리 디지션'에 지원한 하버드대 2024학년도 입학 희망자 수는 전년에 비해 17%나 줄었다.



클로딘 게이 하버드 총장

일부 기부자와 동문은 게이 총장의 사퇴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버드 유대인 동문연맹은 성명을 내고 "게이 총장은 하버드에서 증오를 퍼뜨리려는 이들을 암묵적으로 독려했다"며 "많은 유대인은 더 이상 하버드 커뮤니티에서 공부하고 활동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 졸업생이자 유명 벤처 투자자인 샘 레신은 소셜미디어에 "게이 총장이 나가는 걸 보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게이 총장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여진도 예상된다.

흑인이자 여성의 정체성을 가진

그를 향한 비판의 핵심은 사실 하버드대가 표방했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에 대한 공격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미국 내 반유대주의, 표현의 자유, 인종·성별 등 다양성 잣대를 둘러싼 격렬한 문화 전쟁이 게이 총장의 거취를 둘러 표면화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반유대주의로 시작된 논란은 게이 총장의 인종과 성별, 학자로서의 자격을 둘러싼 논쟁으로 옮겨갔다. 보수 진영에서는 애초 그의 총장 선출이 능력과 관계없이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대학정책의 산물이었다고 공격했다.

2024년 보스톤코리아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이메일과 카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4년에는 종이신문은 격주로 발간됩니다.

종이신문이 발간되지 않은 격주에는 디지털 신문이 발간됩니다.

디지털 신문은 이메일로 여러분에게 발송됩니다.

이에 따라 보스톤코리아 구독을 원하시는 독자분들은 구독 신청을 해주세요.

이메일로 구독을 신청해주시면 더욱 편리하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에 <구독신청합니다>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나홀로 삶'이 이젠 대세...1인 세대 비중 40% 넘었다

지난해 주민등록 세대수 2천391만...1인 세대 비중 '42%' '미혼 싱글·독거노인 늘어난 영향'...4인 이상 '다인 세대'는 감소세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미혼 싱글, 독거노인 등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전체 주민등록상 세대에서 1인 세대의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상 전체 세대수는 2천391만 4천851개다.

이는 2022년 12월 세대 수였던 2천 370만 5천 814개 보다 20만 9천 37개 (0.9%) 증가한 수치다.

특히 1인 세대는 993만 5천 600개로, 2022년 12월 972만 4천 256개보다 21만 1천 344개 늘어 전체 세대 증가세를 1인 세대가 주도한 것을 알 수 있다.

1인 세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달해 전체 10세대 중 4세대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통계청에서 추산한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인 34%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가구 수의 경우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아도 생계 등을 같이 하는 경우 1가구로 집계하지만, 세대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즉, 부부와 자녀 1명은 3인가구지만, 이들이 주말 부부로 떨어져 살고 자녀 또한 학업 등을 이유로 다른 주소에 산다면 1인 세대 3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나 홀로 삶'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1인 세대 비중이 1인 가구 비중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2인 세대는 2022년 574만 4천 486개에서 지난해 586만 6천 73개로, 3인 세대는 401만 553개에서 402만 9천 815개로 다소 늘어났다.

2023년 12월 기준 지역별 세대원수별 세대수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기타 현황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에 4인 세대는 325만 715개에서 314만 8천 835개로, 5인 세대는 77만 6천 259개에서 74만 3천 232개로 감소하는 등 '다인 세대'는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기간 세대당 인구는 2.17명에서 2.15명으로 소폭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세대가 597만 8천 724개, 서울시 세대가 446만 9천 417개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가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세대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16만 835개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혼 싱글, 독거노인 등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1인 세대의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로서도 1인 세대의 증가에 따른 정책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bookmania@yna.co.kr



지난해 주민등록 세대수 2천391만...1인 세대 비중 '42%' 미혼 싱글·독거노인 늘어난 영향...4인 이상 '다인 세대'는 감소세

올해 끊을 수 있을까... '매일 담배피우는 사람' 10년새 크게 줄어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우리나라 15세 이상 국민 중 매일 담배 피우는 사람의 비율이 최근 10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현재 15세 이상 우리 국민의 매일 흡연율은 15.4%다.

매일 흡연율은 평생 일반담배(궤련)를 100개비(5갑) 이상 피웠고, 현재도 매일 궤련을 피우는 사람의 비

율을 뜻한다. 2021년 15세 이상 인구의 매일 흡연율은 10년 전인 2011년(23.2%)보다 7.8%포인트 내렸다.

2014년까지만 해도 15세 이상 우리 국민 10명 중 2명은 매일 담배를 피웠다.

하지만 이듬해부터는 매일 흡연율이 20%를 밑돌았고, 2017~2018년(17.5%) 정체를 겪은 끝에 2019년(16.4%)부터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

고 있다. 매일 흡연율의 하락 폭은 남성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그만큼 남성 흡연자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는 뜻이다.

2021년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26.3%)은 여성(4.5%)의 6배 가까이 되지만, 10년 전에 견졌을 때 하락 폭은 남성(-15.3%포인트)이 여성(-0.6%포인트)보다 훨씬 컸다.

질병청에 따르면 흡연에 따른 건

강 위험은 손에 꼽기 힘들 만큼 많다. 폐암, 식도암, 췌장암,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 외에도 심근경색,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천식, 결핵 등의 위험을 키운다.

더구나 금연 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지나야 폐암이나 췌장암 등의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와 비슷해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찍 담배를 끊는 것이 좋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JAN. 5th - JAN. 11th, 2024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AN OLDIE BUT A GOLDIE: GALBITANG
 Savor the timeless taste of galbitang, or beef short rib soup!
 부드러운 육질, 깔끔한 국물맛이 일품인 갈비탕을 H 마트와 함께 만들어 보세요.



Korean Pear 한국 배 PRODUCT OF KOREA \$29.99 BOX	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	Yellow Papaya 옐로우 파파야 LB \$1.29	Kabocha 단호박 LB \$0.99	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
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EA \$0.99	Pomegranate 석류 LB \$2.99	Ginger 생강 LB \$2.99	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3\$3.99 FOR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NEW CROP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U.S.D.A. CHOICE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9.99	Fresh Whole Pork Baby Back Ribs 생 돼지 등갈비 LB \$3.99
Fresh Boneless Pork Loin for Cutlet 생 돈까스 LB \$5.99	Fresh Boneless Chicken Thigh 생 뼈없는 닭 사태 LB \$2.99
Frozen Pork Single Belly for BBQ 냉동 돼지 삼겹살 (바베큐용) FAMILY PACK/LB \$5.99	Marinat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7.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ozen Beltfish 통갈치 700-1000'S/LB \$3.99	SUHYUP Frozen Yellow Tail 수협 방어 PRODUCT OF KOREA LB \$1.99
Frozen Octopus 문어 PRODUCT OF SPAIN LB \$5.99	TONGTONGBAY Frozen Head-on Shrimp 동통배 머리새우 PREMIUM/30-40'S LB \$4.49
Dried Dasi Anchovy 한려수어 다시멸치 PRODUCT OF KOREA 3.3 LB/BOX \$19.99	FRI/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 Fresh Rainbow Trout 무지개 송어 LB \$5.99

SMART CARD MEMBER ONLY

H MART SMART CARD ONLY ORGANIC FARM Premium Organic Short Grain Rice 유기농장 유기농쌀 15 LB \$47.99	H MART SMART CARD ONLY HAO Premium Seasoned Seaweed Flakes 해오름 밥도둑 김자반 1.41 OZ X 2 EA/PKG \$2.99
H MART SMART CARD ONLY SEOUL MILK Infant Baby Cheese 서울우유 앙팡 아기 SELECTED VARIETIES 6.34 OZ \$4.99	H MART SMART CARD ONLY HAO Hallabong Tea/Jujube Tea with Honey 해오름 한라봉/대추 액상차 2.2 LB \$5.99

RAW NATURE Sweet Rice 자연담은 찰쌀 15 LB \$14.99	NONGSHIM Chapagetti Jjajang Noodles 농심 짜파게티 4.5 OZ X 4 EA/PKG \$4.99	NONGSHIM Hot & Spicy/Spicy Kimchi Flavor Bowl Noodles 농심 육개장/김치 사발면 3.03 OZ X 12 EA/PKG \$14.99	HAO Red Pepper Paste 해오름 태양초 쌀고추장 MILD HOT/VERY HOT 1.1 LB \$2.99	SEMPIO Soy Sauce 샘표 진간장 S/금S RICH & MELLOW/RICH & DELICATE 57.48 FL OZ \$3.99
HAO Premium Sesame Oil 해오름 참진한 참기름 56 FL OZ \$16.99	DAERIMSEON SAJO Fish Cutlet 대림선 사조 흰살 생선까스 21.16 OZ \$6.99	BANHALMANTTEOK Tteokbokki & Dumpling Set 반함만떡 떡볶이 만두 세트 2.01 LB \$5.99	PULMUONE Tempura Udon 풀무원 튀김 우동 1.07 LB \$4.99	PULMUONE Natto 풀무원 순생나도 10.5 OZ \$5.49
GLICO Pocky 글리코 포키 CHOCOLATE/STRAWBERRY 3.81-4.13 OZ (9 EA/PKG) \$3.99	HELLO HOME Women's Cross Band Fuzzy Slipper 헬로홈 여성용 크로스 털슬리퍼 IVORY/PINK/GRAY \$4.99 PAIR	OSEQU Outdoor Vita Toning Patch 오제고 아웃도어 비타 토닝 패치 SMALL (0.08 OZ X 4 EA/PKG) LARGE (0.19 OZ X 4 EA/PKG) -\$15.99 EA -\$17.99 EA \$5.59 EA \$6.99 EA	Dot Cozy Sleep Socks 도트 코지 수면양말 WHITE/BLACK \$1.99 PAIR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
1000 YEAR KIMCHI
 TASTE THE BOLD TRADITION

유산균 김치 / 100% 천연재료 사용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skim@bostonpremierrealty.com	 팀장 한준희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jwh@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김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sh@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김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dkim@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shin@bostonpremierrealty.com
--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다예나 김 617.271.2037 daeyeonkim@bostonpremierrealty.com	 율민 권 978.694.2043 yulmin@bostonpremierrealty.com	 니계 박 617.447.0501 nigye@bostonpremierrealty.com	 파리 주 617.780.7839 joopark@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김 978.886.3248 jina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주 401.935.3397 eunjung1@gmail.com
 세라 김 617.358.6787 seorakim@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현수 김 617.508.6973 hyeonkim@gmail.com	 마사 김 213.503.0397 masan@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김 413.607.1402 mikikim@gmail.com	 선광환 617.815.3268 sunghwan@bostonpremierrealty.com
 희민 민 617.877.0387 heonmin@bostonpremierrealty.com	 이예준 781.899.3412 eejeon@bostonpremierrealty.com	 현수 김 781.899.1214 hyeonkim@bostonpremierrealty.com	 지연 김 617.515.1162 jieun@bostonpremierrealty.com	 이예준 617.645.6728 eejeon@bostonpremierrealty.com	 희민 민 604.841.5102 heonmin@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24.6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652 nancywang123@gmail.com	 Shirley Zhao 857.20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Vivian Yu 617.936.2715 viviany@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622.8979 xiang777@gmail.com	 Lu Jiang 248.448.0117 lujiang1@gmail.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03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5 misha@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u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빙센트 박 201.446.8995 vt11@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568.0409 jeike@bostonpremierrealty.com	 이성진 857.280.6434 isungjin@bostonpremierrealty.com	 Nimi Bolanger 413.257.1686 nimibolanger@gmail.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피습' 이재명, 중환자실서 일반 병실로... "절대 안정 필요"

"당분간 면회 불가·지표 검사 양호...경동맥 작은 혈관서도 활동성 출혈"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한주홍 정수연 기자= 부산 방문 도중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이틀째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내경정맥 손상을 입어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2시간 가량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에서 "이 대표가 오늘 오후 5시 병원 지침에 따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겨졌다고 한다"며 "당분간 면회할 상황이 안돼서 면회는 안 받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영입인재이자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 강정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이 대표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회복하고 있으나 당분간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전 부회장은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약간의 물만 먹고 있고 항생제와 진통제 등 회복을 위한 약물을 정맥에 투여중"이라며 "지표 검사는 양호한 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무기록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대표는 초기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고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식 이후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한 것이라 중요 장기에 대한 후유증이 우려돼 향후 예후 관찰이 더욱 필요하다"며 "일반 병실로 옮겨도 당분간 접견을 자제하고 치료에 집중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식 기간 중 주요 장기에 피 검사로 드러나지 않는 손상이 있었을 수도 있다. 다량의 출혈이 동반될 때 앞으로 나타날 후유증은 의사도 예측이 어렵다.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전 부회장은 또 "내경정맥 둘레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으로 흉쇄유돌근 곳곳에 혈종 덩어리가 존재했다"며 "애초 알려진 바와 달리 경정맥 출혈 뿐 아니라 관통된 근육층에 분포하는 경동맥의 작은 혈관서도 다수의 활동성 출혈이 확인돼 헤모클립이라는 지혈도구로 지혈했다"고도 전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목 부위에 1.5cm가량 열상을 입었다는 발표와 관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련해 "이 대표의 부상은 열상이 아닌 '자상'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부회장은 "일각에서 열상이라고 보도되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열상은 피부 상처인데 환자에게선 피부를 지나 좌측 흉쇄유돌근, 즉 피하지방 및 근육층을 모두 관통해 내경정맥에 9mm 이상의 깊은 상처, 즉 자상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술장에서 정확히 측정된 것도 1.4cm, 일반적으로 볼때 2cm 정도의 창상 내지 자상으로 보는 게 맞

다"며 "칼로 가격 당해 생긴 상처라 열상이란 표현이 맞지 않고 사이즈도 축소하는 의미를 잘 이해못하겠다"고 했다.

박대변인도 "깊이 찔려서 난 상처 이기에 경정맥 봉합 수술을 했다. 따라서 자상이라는 표현이 맞다"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열상을 자상으로 정정해 보도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강 전 부회장은 서울대병원 측이 아닌 자신이 이 대표의 의학적 상태에 대해 브리핑하는 이유에 대

해 "의학적 판단은 주치의가 브리핑하는 게 맞는데 공개 브리핑이 왜 없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당의 대표로서 온 국민이 보호자라고 생각해 적어도 책임있는 의료진이 보호자에 설명하는 차원에서 브리핑하는 게 타당성이 높다"며 "그게 안 돼 내가 의무 기록과 수술 기록지를 근거로 브리핑했다"고 설명했다.

ses@yna.co.kr, krbobae@yna.co.kr, yumi@yna.co.kr

이재명 습격범, 국힘 당원이었다가 작년 3월민주당에 입당

지난 2일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부동산중개업자 김아무개(67)씨가 수년간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다가 10개월 전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일 김씨가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했다는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관련해 이날 오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정당법 24조 당원명부 조항에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하겠다고 강요할 수 없으며,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 조사에서도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김씨는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당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3월 민주당에 입당해 최근까지 당적을 보유해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산 지역 당원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경찰

에 김씨의 당적 보유 여부를 확인해줬다는 사실과 함께 "현재 피의자는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김씨는 2020년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기 전 4~5년간 당적을 보유했다고 한다.

김씨의 정치 성향에 관한 주변 인물들의 진술도 나왔다. 김씨의 외조카 이아무개(57)씨는 이날 한겨레와 한통화에서 김씨가 "4~5년 전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몇번 나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부동산중개업소 인근에 있는 한 편의점 주인은 "물건을 사러 올 때면 스마트폰으로 정치 관련 유튜브를 크게 틀어놓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씨의 주소지인 충남 아산 배방읍의 부동산중개업소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확인된 김씨의 혐의는) 살인미수 말고는 없다. 공범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김씨의 진술과 지난해 온라

인 쇼핑몰에서 범행에 쓸 흉기를 산 뒤 사용하기 쉽게 형태를 변형한 점 등으로 미뤄 그가 이 대표 공격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1일 열차 편으로 주소지인 아산에서 부산으로 왔다가 울산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부산에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경찰은 김씨가 이 대표에게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상당 기간 이 대표를 따라다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달 13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영상을 보면, 김씨가 이번 범행 때 착용한 파란색 왕관 모양 머리띠와 같은 머리띠를 한 김씨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성이 등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최근 행적과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 방향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10대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The MA Problem Gambling
Helpline
800-327-5050

마동석 올해 첫 출격...액션 영화 '황야' 26일 넷플릭스 공개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범죄도시' 시리즈를 통해 '한국형 히어로'로 거듭난 배우 마동석이 올해 첫 주연작 '황야'에서 괴력의 사나이로 돌아온다.

넷플릭스는 오는 26일 마동석 주연의 영화 '황야'를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폐허가 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이 벌이는 최후의 사투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다.

마동석은 괴력의 사냥꾼 '남산'을 연기했다. 군용 장검으로 악어를 잡고 장총과 소총, 맨손으로 적에 맞서는 다양한 액션을 선보인다.

이준영은 남산의 파트너 '지완' 역을, 이희준은 의사 '기수' 역을 맡았다. 노정의와 안지혜는 '소녀 수나'와 특수부대 소속 중사 '은호' 역을 각각 소화했다.

이 영화는 '범죄도시' 시리즈 무

술 감독으로 이름을 알린 허명행 감독의 연출 데뷔작이다.

허 감독은 올해 상반기 개봉 예정인 '범죄도시 4'에서도 직접 메가폰을 잡았다.

마동석은 주인공인 괴물 형사 '마석도'로 '범죄도시 4'를 이끈다.

아울러 임대희 감독의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에서도 액션을 뽐낼 예정이다.

rambo@yna.co.kr



테일러 스위프트, 엘비스 빌보드 기록 갱신...'최장기' 68주 1위

(서울=연합뉴스) 임지유 기자 =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로큰롤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를 제치고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서 가장 오래 1위에 머무른 솔로 가수가 됐다.

1일(현지시간) 미 NBC 뉴스와 빌보드에 따르면 스위프트는 1월 6일자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앨범 '1989(테일러스 버전)'로 5번째 1위를 기록해 지금까지 총 68주 동안 1위 정상을 기록하게 됐다.

이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1956년부터 2002년까지 10개 앨범으로 기록한 기존 솔로 가수 최장 기록인 67주를 넘어선 것이다.

스위프트는 그룹과 개인 통틀어서는 전설적인 밴드 비틀스에

이어 두 번째 최장 기록을 갖게 됐다.

비틀스는 1964년부터 2001년까지 총 19개의 앨범으로 132주간이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스위프트는 2008~2009년 11주간 1위에 머무른 앨범 '피어리스'(Fearless)를 시작으로 '스피크나우'(Speak Now), '레드'(Red), '레putation', '러버'(Lover) 등으로 약 15년에 걸쳐 13개 앨범을 정상에 올렸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2006년 데뷔 이후 20여년간 꾸준히 활동하며 세계적인 팝스타로 자리 잡은 싱어송라이터다.

지난해부터 열고 있는 스위프트의 순회공연 '에라스투어'는 미국과 남미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



를 끌고 있다.

미국에서는 스위프트가 공연을 여는 도시마다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발생해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23년 '올해의 인물'에 스위프트를 선정했다.

한편 이날 '빌보드 200' 차트에서는 마이클 부블레의 캐럴 앨범

인 '크리스마스'가 스위프트에 이어 2위에 올랐으며 니키 미나즈의 '핑크 프라이데이', 넷 킹 콜의 '더 크리스마스 송' 등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PGA 골프 레슨

골프 처음 배우는 초보자, 스윙 바꾸시려는 중급자, 골프를 직업으로 하려는 프로지망생, 어린이, 주니어, 어른 남녀 모두 환영합니다

장소: Belmont, Acton
연락처: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바이러스 같은 가짜뉴스, 예방은 팩트체크 백신입니다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비판적 사고 없이 뉴스를 무작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행태가 가짜뉴스를 확산시킵니다.
뉴스가 진짜인지 의심하고, 출처를 확인하고, 다른 기사와 비교하는
팩트체크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짜뉴스라는 바이러스로부터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라는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모두가 팩트체크라는 백신으로 허위정보를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국민 김유진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70) 찰리 멩거의 투자 조언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워런 버핏의 파트너이자 버크셔 해서웨이 이 부회장이자 찰리 멩거, 향년 99세로 별세했다. 그의 날카롭고 현명하며 냉정한 투자 조언을 끊임없이 말했다. 일반 투자자가 기억해야 하는 조언이 무엇인지 새해를 시작하며 함께 알아보자.

투자할 때 100% 확실한 것은 없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는 어떠한 투자도 괜찮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리라 생각하면 안 된다. 경제와 국가는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멩거로부터 이 경고를 염두에 두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덜어줄 것이다. 부동산에 20%만 투자해서 부동산을 구입하여 렌트 수입을 받겠다는 생각, 즉 '레버리지 이용'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렌트 수입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남의 돈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임을 알아야 한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왜곡된 렌즈를 통해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 매우 위험

하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것에 집중한다. 판단이 흐려진다는 뜻이다. 우리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지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특정한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한 후 그 기업의 좋은 점만 보려고 하고 인터넷 등에서 동의를 얻고자 한다.

세상은 어리석은 도박꾼들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은 인내심 있는 투자자만큼 잘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어딘가에 투자한 후는 근히 대박을 기대한다. 그러나 단기간의 대박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워런 버핏은 말하기를 '대부분의 투자자가 부자가 아닌 이유는 천천히 부자 되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멩거는 인내심 있는 투자자의 전형이었다. 그리고 그의 접근 방식은 그를 수십억 달러의 부자로 만들었다.

인내심은 배울 수 있다.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투자하는 데 큰 장점이다. 인내심에 대해서는 멩거가 생존 시 자주 언

급한 주제였다. 그는 '큰돈을 버는 것은 사고파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에 있다' 라고 말했다.

훌륭한 회사는 당신이 그 회사 주식을 보유하든 안 하든 계속 일하고, 평범한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버핏과 자신은 주식을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을 선택하는 사람' 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훌륭한 투자자가 되려면 계속 배워야 한다. 세상이 바뀌면 반드시 변해야 한다. 변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한다. 버핏이나 멩거는 평생 독서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투자한 주식 가격 등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일반 투자자 개인이 투자에 관한 책자를 얼마나 읽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일 년 동안 책 한 권 읽어보지 않고 한 투자가 제대로 될 확률은 거의 없다. 계속 배우고 적응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큰 승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실수를 반복한다. 우리는 모

두 본인이 배우고 경험한 것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결정한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한인 동포 많은 분은 목돈이 생기면 주택담보대출금을 갚는다고 생각한다. 이자를 절약하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미국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 90년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은 약 10%이다. 이것을 고려하면 주택담보이자율 3%를 갚을 이유가 전혀 없다. 본인이 모를 수 있다는 폭 넓은 마음가짐이 어떤 획기적인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다.

'과거는 반복한다' 라는 말이 있다. 미래가 과거처럼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거는 우리에게 미래의 큰 그림을 제시해 준다. 주식시장이 특히 그렇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은 그때 그런 이유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했지만, 꾸준히 상승했다.', '장기투자하면 투자 위험성은 적어지고 수익은 더 상승한다.', 등이다. 이런 값진 교훈을 과거 주식시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10))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서들어갔다. 보명은 미실과 더불어 왕의 총애를 다룰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태자를 힘써 거부하지 않고 기롱짓거리를 하게 되었다. 그 후 동륜태자는 매일 밤마다 보명궁을 찾았다. 7일째 되는 날 밤에는 아무도 없이 혼자서 담장을 넘어 들어가다가 큰 개에게 물리고 말았다. 내실에 있던 보명궁주는 밖의 소란을 듣게 되었고 급히 뛰어나와 보니 태자가 자신이 기르고 있던 개에게 물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궁주는 태자를 안고 내실로 들어가 응급처치에 만전을 기했지만 동이 틀 무렵 동륜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태자의 죽음에 왕궁은 발각 뒤집어졌고 진흥왕은 태자가 왜 보명궁에서, 그것도 새벽에 개에게 물려서 죽었는지 자초지종을 밝히려 고 엄명을 내렸다. 즉각 조사는 진행되었고, 죽은 동륜태자의 종인들을 문초한 끝에 밝혀진 사실과 연루된 면면들의 정체는 진흥왕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동륜과 보명의 관계는 물론 미실과의 관계마저 알게된 진흥왕은 크게 옥사를 일으키려 했다. 이에 미실은 목 놓아 울면서 궁을 나가려고 하였다. 미실은 남편 세종과 낳은 10세 가량의 하종과 동륜태자와 낳은 딸 애송공주, 진흥왕과 낳은 반야공주, 난야공주, 막내 수종전군 등 아이들 다섯 모두 데리고 출궁하려고 하였다.

한편 사도왕후는 "어찌 천한 무리들의 어지러운 말로 총첩의 은혜를 빼앗고 죽은 아들

의 혼령을 아프게 하려 합니까?" 라면서 옥사를 거두어 드리라고 간청하였다. 이에 왕은 불문에 부치라는 조칙을 내렸고, 미실을 용서하려고 친히 미실궁으로 거동하였다. 미실은 눈물로 사죄하였고, 왕 또한 받아드렸다.

그때 미실의 남편 세종이 변방으로 부처소환되었다. 동륜태자의 '개 죽음' 사건에 원화 미실을 비롯하여 많은 낭도들이 연루되었기에, 원화를 폐지하고 다시 세종을 풍월주로 세워 화랑도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진흥왕은 미실을 계속 전주(主)로 삼아 곁에 두고자 했지만, 왕경으로 돌아온 세종의 믿음/충성심을 잃을까 염려하여 망설이고 있었다(세종은 진흥왕의 이부동복 동생이다. 세종의 아버지는 이사부이고, 진흥왕의 아버지는 임종이다).

464) 보명궁주는 지소태후(진흥왕의 어머니)와 침신(臣) 구진(仇珍)의 딸이다. 보명은 미실과 함께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의 후궁이었다. 보명은 진흥왕의 아이는 낳지 않았지만(기록상), 진지왕과 석명공주를 낳았고, 진평왕과는 양명공주를 낳았다. 양명은 미실의 아들 보종(아버지는 7세 풍월주 설화랑) 과 혼인하여 딸 보리와 보랑을 낳았다. 보리는 김춘추(태종무열왕)의 첫 번째 부인이다. 그들의 딸 고타소가 김품석의 부인이 되었다. 품석이 대야성 도독으로 임명되자 대야성에서 살다가 642년(선덕여왕 11년) 8월 백제의 윤충이 이끄

는 1만 군사에 의해 성이 함락되자, 품석의 가족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품석은 부하 검일의 아내를 탐하였다가 검일의 원망을 샀고, 검일은 백제군이 침공하자 창고에 불을 질렀고 곧 성은 함락되었다. 반면에 화랑 죽죽과 용석은 항복하지 않고 백제군과 끝까지 싸우다 전사하였다). 김품석은 좌장군 김품일의 동생이고, 660년 백제의 계백장군의 진영에 세 번이나 찾아가 결투를 벌였다가 전사한 화랑 관장이 김품일의 아들이다.

보랑은 진평왕의 후비였는데, 승만왕후의 질투로 출궁하여 이부동복의 남매인 김양도(22세 풍월주)에게 시집을 갔다. 670년(제30대 문무왕 10년) 김양도가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옥사하자 남편을 따라 죽었다.

한편 보명궁주의 아버지 구진은 대각찬(신라 17관등 중 제1위인 각간 위에 설정된 비상설 관등이다) 으로 551년(진흥왕 12년) 거칠부, 각찬 비태, 잡찬 탐지, 잡찬 비서, 파진찬 노부, 파진찬 서력부, 대야찬 비차부, 미실의 아버지이자 2세 풍월주인 아찬 미진부와 함께 백제군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한 유능한 장군이었다(삼국사기, 거칠부전)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JAN. 4th - JAN. 11th, 2024

Available at H Mart Burlington & Quincy stores



Cooked Short Neck

통통배 바지락살
16 OZ + 16 OZ/PKG

LIMIT
5

\$6.99

2 FOR THE PRICE OF ONE
한 팩 가격으로 한 팩이 더!



Canned Milkya Soft Drink

해오름 밀키야 (캔)
CREAM SODA & YOGURT FLAVORED
250 mL X 6 CANS/PKG

\$3.49

← ~~Reg. \$4.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2023년 미국 부동산 시장을 총 정리하면서

다사다난 했던 2023년을 마감하면서 2023년 우리가 겪었던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쓴다.

그리고 다음 칼럼에서는 다가 올 2024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쓰려고 한다.

2023년은 그야말로 팬데믹이 마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여행자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었고 팬데믹전보다 아저 나온 차들로 트래픽은 대단했다.

그렇다면 경제는 어떠 했을까?
2023년 상반기에는 제법 경기가 좋은 듯 했지만 많은 대기업에서 직원들은 많이 정리하고 정리하고 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떠 했을까?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 하지전에 이자율에 대해서 알아 봐야 한다.

2023년에 4번 이자가 올랐다.
시기를 보면 2월, 3월, 5월 7월 이었다.
2022년에 3-4% 이자율은 2023년에 5%-6% 가 되었다.

그런데도 왜 부동산은 또 올랐을까?
미국 부동산은 지난 십몇년간 계속 올랐다. 특히 팬데믹 전후에 많이 올랐다.
그 이유를 나누어서 이야기 해 보겠다.

1. 이자율 - 1981년에 이자율은 16.63%, 2021년에 이자율은 2%. 서브프라임이후부터 저렴했던 이자율은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사는게 당연했고 그 이자율로 집을 산 사람들은 그 집을 팔 이유가 없다.

2. 팬데믹 - 우리는 2년이라는 기간동안 팬데믹이라는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역사를 살았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집에서도 일을 할수 있다는 장점을 배웠다. Zoom이라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통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오피스 건물들을 많이 감소와 오피스 없이도의 가능성을 보았다. 집은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원하는 이동을 보았다.

3. 공급 -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고 팔 사람이 없다. 이자율에서도 말했지만 지난 십 몇년간 이자율이 많이 낮았는데 그누가 그 집을

을 팔까?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 집을 렌트를 준다면 그 집에 페이먼트는 해결이 될테고 그 집을 팔 이유가 없다. 또한 이 집을 렌트 주기 위해서는 집 주인은 집 하나를 더 사던 렌트를 하던 집 하나가 또 필요 하다. 현재도 공급이 더 필요하다.

4. 투자 - 위에 모든 이유를 볼때 이 세상에서 무슨 투자가 가장 현명한 투자 일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좋은 투자라고 한다. 과연 그 주식 투자를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가? 미국 부동산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내가 자주 쓰는 말이 "미국 부동산은 transparent 해요." 확실한데 투자 할수 있는게 부동산이고 투자 가치가 최고라고 생각한 시기다.

5. 심리 - 흔히 말하는 남이 사면 나도 사야 할것 같은 심리가 많이 작용한다.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다들 사는 부동산 나도 사야 할것 같은 심리가 많이 작용했다고 본다.

이 모든 요소가 2023년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 최고로 오른 부동산 가격을 찍게 해주었

다. 미국이 기회에 나라 라는 말이 얼마나 더 같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집을 마련한다는건 힘들거 같다.

2023년에도 2022년과 같이 집이 하나가 나오면 아직도 Multiple offers로 집값은 올랐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1월 7일 - 1월 13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쥐띠 곳곳에 귀인이 있으니</p> <p>● 운수: 긴 시간 고민하게 하던 일이 명쾌하게 해결됩니다. 날아갈 듯이 흥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곳곳에 귀인이 있으니 활동하는 범위가 넓을수록 자신에게 득이 될 것입니다. ● 애정: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았던 고민과 갈등의 늪에서 벗어납니다. 한결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9, 12일 길일, 7, 10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소띠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를</p> <p>● 운수: 코앞에 있는 자기 일을 처리하기에도 벅차서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쓸 여력이 없겠습니다. ● 금전: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보낼 때는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 애정: 의견을 합쳐야 할 일을 두고 서로가 탄생각을 품고 있군요. 당장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0, 13일 길일, 8, 11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범띠 원칙을 고수해야</p> <p>● 운수: 당장은 편한 것 같아도 흔들리지 말고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결국은 바른 것이 이깁니다. ● 금전: 순리대로 흘러 가야 일도 잘 성사됩니다. 특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줍니다. ● 애정: 미사여구가 들어간 화려한 말보다 진정성이 담긴 한 마디가 더 강한 힘으로 상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7, 11일 길일, 9, 12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토끼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p> <p>● 운수: 정성을 들이고 신경 쓴 만큼 그에 보답하는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니 힘든 시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 금전: 굳이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해가면서 더 나은 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매상이 증가할 것입니다. ● 애정: 모처럼 마음이 통하는 상대를 만나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8, 12일 길일, 10, 13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용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p> <p>● 운수: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일이 뒤죽박죽되어 영 쉼 실타래처럼 풀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오자마자 나갈 일이 생깁니다. ● 애정: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지금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내린 선택이 지나고 보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9, 13일 길일, 11, 12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뱀띠 배짱이 있어야</p> <p>● 운수: 무조건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잘 안 돌아간다는 신호가 오면 잠시 멈춰서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 금전: 약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눈앞의 적은 이익은 내어주는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 애정: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다가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7, 10일 길일, 9, 12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말띠 상식선에서 처리해야</p> <p>● 운수: 무슨 일든 경우에 맞게 행동하고 상식선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더디게 가고 답답한 것 같아도 제대로 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 금전: 바깥 일이 잘되어도 집안이 편안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가족에게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때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들어주고 믿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8, 11일 길일, 10, 13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양띠 지금은 때가 아니니</p> <p>● 운수: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갈등으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니 참고 지나가야 합니다. ● 금전: 실패나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머릿속의 생각이나 이론만으로는 통하지 않으니 직접 부딪쳐서 얻는 산 경험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7, 12일 길일, 11, 13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원숭이띠 솔직하게 털어놓고</p> <p>● 운수: 당장은 인정받지 못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기회를 보아야 합니다. ● 금전: 정상적으로 일한 것에 관한 결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불로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애정: 혼자서 속앓이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해결책도 생기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10, 13일 길일, 8, 12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닭띠 행운의 여신의 저울이 내 쪽으로</p> <p>● 운수: 행운의 여신의 저울이 내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조금은 힘이 들고 번거로우도 자신이 직접 나서서 손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비교적 원만하게 흘러가는 운세입니다. 맘 흘려서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자주 생각하게 되고 모습이 떠오르는 사람이 생기겠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9, 10일 길일, 11, 13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개띠 항상 침착하게</p> <p>● 운수: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보다도 나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 금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생각지도 않게 손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침착하게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처음에는 사랑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아서 힘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7, 9일 길일, 8, 10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돼지띠 다시 잘 생각해야</p> <p>● 운수: 남이 하는 말에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마음 상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런저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금전: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충동 구매로 인해서 돈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 애정: 다시 잘 생각하세요. 한 번 믿음이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도 어렵고 오래 가기도 힘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8, 13일 길일, 9, 12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12/8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즈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9/1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 choishhealthspa@gmail.com

7/14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2/3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미스터리 풀리고 액션 · 유머 강해졌다 ...영화 '외계+인' 2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기다란 족수를 뻗어내는 외계인과 도포를 휘날리는 고려시대 도사가 대결을 펼친다

외계인은 인간의 과학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괴력을 발휘한다. 도사가 부리는 도술도 미지의 힘인 건 마찬가지다. 초능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신비한 힘을 가진 존재들이기에 격투도 그만큼 현란하다.

흥행의 귀재로 통하는 최동훈 감독의 야심 찬大作 '외계+인' 2부가 3일 시사회에서 베일을 벗었다.

2022년 7월 개봉한 '외계+인' 1부의 뒷이야기인 이 영화는 2022년 서울을 배경으로 외계인과 현대인, 고려시대 도사들의 전투를 그려낸다. 아득하게 떨어진 시공간이 한 데 만나면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스펙터클이 펼쳐진다.

1부가 '외계+인'의 독특한 세계관과 다양한 캐릭터를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2부는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내면서 이야기를 완결한다.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항상 존재하는 과거, 인간의 몸속에 감히는 외계인 죄수들, 과거와 미래로 통하는 시간의 문을 열어주는 보물인 '신검' 등 기본 설정은 1부에서 그대로 이어진다.

1부는 인간의 몸에서 탈옥한 외계인 죄수들이 붉은색의 외계 대기로 꽂 찬 '하바'를 서울 한복판에서 터뜨려 지구를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이때 시간 이동을 통해 고려시대로 넘어간 서울 소녀 이안(김태리 분)이 잃어버린 신검을 되찾으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됐다.

신검은 하바의 폭발을 멈추게 하는 능력도 지녔다. 이안은 지구의 멸망을 막기 위해 2022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고려시대 얼치기 도사 무렵(류준열), 몸속



에 외계인이 숨어있는 자장(김의성), 삼각산 신선 흑설(염정아)과 청운(조우진) 등이 신검의 행방을 쫓으면서 2부가 전개된다.

1부는 전통 설화와 SF의 요소가 하나의 세계관에 유기적으로 통합되기도 하는 이질적으로 병존하는 느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부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 감독은 '범죄의 재구성'(2004)을 시작으로 '타짜'(2006), '전우치'(2009), '도

둑들'(2012), '암살'(2015)에 이르기까지 내놓은 작품마다 흥행했다. '도둑들'과 '암살'은 '천만 영화'의 반열에 들었다.

그런 최 감독에게 '외계+인' 1부는 처음으로 쓴맛을 안긴 작품이다. 이 영화는 154만명의 관객을 모으는데 그쳐 흥행에 실패했다.

2부는 새해 개봉하는 한국 영화 대작의 첫 타자로 기대를 모으지만, 앞길이 순탄치는 않다.

ljlglory@yna.co.kr

나영석 "세븐틴은 착한 애들... '나나투어'로 보여주고 싶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세븐틴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착한 애들'이에요. 애들이 정말 귀찮아요. 저도 이번에 모르던 매력을 알게 됐는데, 시청자들도 그 매력을 같이 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 여행 예능 프로그램을 흥행시킨 나영석 PD가 보이그룹 세븐틴의 이탈리아 여행 가이드로 나선다. 나 PD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엘리에 나호텔에서 열린 '나나투어 위드 세븐틴'(이하 '나나투어') 제작발표회에서 세븐틴의 매력을 이렇게 설명했다.

'나나투어'는 세븐틴 멤버들이 갑자기 일정을 고지받고 나 PD와 함께 6박 7일 동안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과정을 담았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 5월 방송된 '출장 십오야' 시

즌에 출연한 세븐틴 멤버들이 퀴즈 상품 뽑기에서 '세븐틴 꽃청춘 출연'이라고 적힌 쪽지를 뽑은 것을 발단으로 기획됐다.

제작진은 특히 여행 직전까지도 세븐틴에게 출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놀라움을 키웠다고 한다. 세븐틴 디노는 "콘서트를 마친 뒤에 편하게 술을 마시고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석이형(나 PD)이 나타났다"며 "주량을 넘겨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도 형 얼굴을 보자마자 술이 다 깬다"고 털어놨다.

공개된 예고 영상에는 나 PD가 가이드용 깃발을 들고 세븐틴 멤버들을 인솔하고 관광지에 얹힌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모습이 담겼다. 에스쿱스는 부상 때문에 여행에 함께하지 못하고 나머지 열두명의 멤버가 여행을 떠났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생각쓰기, 말쓰기, 글쓰기의 치유

오륙십대 부모님들 세대의 어릴 적 겨울 방학을 생각해 보면 방학 숙제 중에 '그림일기'가 있었다. 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며칠은 즐거워 노트에 그림을 그리고 일기를 쓰다가 며칠은 또 숙제가 밀릴 때가 있었다. 그렇게 밀리면 요일은 캘린더를 찾아 적어넣는데 날씨는 꼼꼼이 생각해야 한다. 참으로 오래된 빛바랜 흑백의 추억이다. 그래도 밀렸던 그림일기를 어찌해서라도 다 채워서 개학 날에 가져갔던 기억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움직이는 곳을 셀카로 담아 SNS에 올리거나 하는 일과 별다르지 않을 듯하다.

요즘 무엇보다도 책 읽기에 시간을 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각자 좋아하는 장르의 책을 찾아 만나다 보면 '내면의 나와 만날 기회'가 많다. 무엇보다도 책을 읽으며 밑줄을 긋는 이도 있겠으며, 메모를 하는 이들도 있다. 이왕이면 책을 한 번만 읽고 책장을 덮지 말고 두세 번 읽을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을 일이다. 읽은 책에 대해 굳이 독후감이 아니더라도 내 생각을 노트에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일상의 삶에 큰 도움이 된다

. 이렇게 메모했던 글들을 6개월이고 1년이 지나서 다시 들춰보면 거울처럼 '나 자신'이 보이는 것이다.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편안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불편한 이들도 있기 마련이다. 누구한테 특별히 말할 수도 없고 혼자 마음에 담고 생각하자니 화가 불쑥불쑥 치밀어 오를 때도 얼마나 많던가.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달래려고 붓글씨를 쓰든가 그림을 그리든가 일기를 썼다. 그것으로도 화가 식이지 않을 때에는 기도를 하고 작은 유리병에 속상한 내 마음과 내용을 적어 유리병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화가 가라앉으면 그 속의 것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곤 했던 기억이다. 그렇게 나의 글쓰기는 내 속의 것들을 혼자서 치유하는 방법이 되었다.

얼굴의 생김새가 다른 만큼이나 삶의 방식이나 사고하는 방식은 모두가 다르다.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기까지가 힘들었다는 생각이다. 누가 뭐래도 내 생각이 이렇게 와 있으면 내가 옳은 것 같았기에 의견이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

다. 그런 생각(마음)이 들었을 때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대신에 노트에 내 생각을 적는 습관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쓰기와 하루의 일기를 쓰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늘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치유'의 시간이 된 것이다.

상대에게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툭 뱉어버린 것은 말이라기보다는 서로에게 불편한 마음을 전달하기도 한다. 툭 뱉어버린 그 말 한마디에 말한 사람은 멀쑥해지고 듣는 사람은 서운해지는 것이다. 서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그 관계가 오래가는 것이다. 우리네 삶에서 때와 장소에 따라 가릴 수 있는 말은 그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일은 그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만큼이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은 지혜롭지만, 그렇지 않은 말은 상처가 되는 것이다.

생각쓰기를 실천하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나아진다든 사람의 마음이 되어보는 귀한 시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쓰기가 자연스러워질 때쯤이면 그 어느 관계나 모임에서 때와 장소에 따라 말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 부족한 내 모습을 알아차렸다면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생각쓰기는 나의 고집과 아집을 찾아내는 훌륭한 도구가 되었으며, 말쓰기는 배려와 겸손을 배우게 하는 귀한 스승이 되었다.

요즘처럼 여기저기 SNS로 서로의 생각을 올리는 일이 많아지는 때에는 더욱이 글이란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된다. 생각 없이 툭 적어올린 글로 인해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종종 생기게 된다. 말은 그나마 서로 그 자리에서 서로의 마음으로 풀 수 있지만, 글이란 것은 지워지지 않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 오래도록 그대로 있지 않던가. 내 마음이 편안해야 상대방에게도 너그러워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아니던가. 하여, 내 마음의 불편함이 있다면 생각쓰기, 말쓰기, 글쓰기를 통해 치유를 얻을 바라는 마음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발꿈치를 들어요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발꿈치라면 성경에서 야곱이 떠오른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라 했으니 말이다. 쌍둥이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는 거다. 발꿈치를 해부학으로 설명한다면 딱딱하다.

한국엔 까치발이란 말도 있다. 발꿈치를 들다라는 뜻이다. 듣기에도 경쾌한데 까치가 종종걸음 치는게 연상되기 때문이다.

까치발은 어릴적 학교에서 자주 들었다. 선생님들의 주의사항이었던 거다. 복도에선 발꿈치를 들고 조용히 걸어야 한다. 까치발을 해야 마땅하다는 거다. 하긴 운동장

에서 처럼 광광 뛰다보면 매끄러운 마루에서 넘어질 수도 있다. 또한 키를 짤 적에도 발꿈치를 든다. 슬쩍 드는데 몇센티는 더 크게 보이고 싶은 심정이었던 터.

군중속에서 무슨일 인가 궁금할 적에도 발꿈치를 든다. 까치발은 담장안 흠모하는 처자의 자태가 보고 싶을때도 필요하다. 춘향전에 나오는 한대목일 수도 있는데, 발꿈치를 들고 횃바람을 불수도 있겠다. 춘향을 향한 연모의 표현이고 사랑의 세레나데를 읊는다면 더 그럴듯 하다.

지난 달 서울 광화문에 새로운 글판이 걸

렸다. 시 '이것은 사랑의 노래' 에서 가져온 구절이란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요
새의 발이 가득해요
발꿈치를 들어요
첫눈이 내려올
자리를 만드어요
(이원, 광화문 글판 중에서)

발꿈치라면 돌아가신 내 선친의 모습이 떠오를 때도 있다. 발꿈치 군살을 자주 벗

겨 내시곤 했던 거다. 매일 신어야 하는 구두때문이라고 멋쩍게 웃으셨다. 어머니의 불평이 뒤따랐는데, '아이고 방바닥에 떨어질라.' 발꿈치 군살은 각질이라 하던가.

내가 이젠 선친의 나이가 되었다. 아버지 마냥 내 발꿈치에도 각질이 생긴다. 나역시 벗겨내야 한다. 각질을 벗겨 낼 적에 사랑의 노래를 콧소리라도 부르는 건 아니다.

설날은 까치설날도 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시고 발꿈치를 들으시라.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창 25:26)



휴람 - 성형외과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 눈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350 만원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am@huraam.kr / www.hura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30 젊은 고혈압 증가, '비만'과 '스트레스'가 원인



고혈압이 젊어지고 있다. 전 세계 유병률 1위인 고혈압은 심장, 뇌, 신장 관련 다수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기온이 떨어지면 근육, 혈관이 체온 유지를 위해 수축하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 고혈압 환자에게 위험하다. 고혈압을 오래 앓아 동맥경화증이 발생한 환자는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합병증 발생도 쉬워 겨울철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대한고혈압학회가 발표한 ‘고혈압 팩트시트 2023’에 따르면 국내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28%(약 1,230만명)가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환자가 늘면서 몇 년새 20~30대 젊은 환자도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20~30대 고혈압 환자수는 811,106명에서 2022년 990,715명으로 5년 새 약 22% 증가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증상이 거의 없어 병을 키우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20~30대 젊은 고혈압 환자들은 질환 인지율이 낮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해 사망 위험성이 높은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혈압은 18세 이상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상태를 말하며 크게 원인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과 원인질환이 밝혀져 있는 이차성 고혈압으로 구분된다. 전체 고혈압 환자의 95%는 본태성 고혈압이다.

20~30대 젊은 고혈압이 증가하는 원인은 과로, 스트레스, 배달음식과 외식 위주 소비트렌드 변화 그리고 운동량 부족에 의한 비만을 증가, 음주와 흡연 습관 등을 꼽는다. 최근 마라톤, 엽기 떡볶이 등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자극적인 음식은 비만 원인이 되며, 비만은 혈압을 올리는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증가시켜 혈압을 높이기 때문에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비만인 사람은 일반인 보다 고혈압 발생 확률이 5배나 높다.

실제 국내 비만 유병률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남성 비만율은 2019년 37.3%에서 2021년 40%로 4.5% 증가했다. 30대도 2019년 46.4%에서 2021년 51.4%로 5% 증가했다. 30대 여성 비만율은 2019년 21.6%에서 2021년 28.7%로 4.1% 증가했다.

갑자기 두통과 어지럼증, 눈 충혈이 생기거나 코피가 난다면 고혈압을 의심할 수 있다. 이

명이 생기거나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지속될 때도 고혈압일 수 있다. 문제는 젊은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높아도 머리가 아파도 잘 인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고혈압 진단을 받아도 방치한다는 점이다.

‘고혈압 팩트시트 2023’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 혈압 수치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조절되는지를 뜻하는 유병자 조절률에서 20~30대는 국내 환자 평균 4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에 불과했다. 혈압 약 복용 시 혈압이 정상 범위로 조절될 수 있으나 20~30대는 약도 잘 복용하지 않아 관리가 힘든 실정이다.

높은 혈압을 장기간 방치하면 심장벽이 두꺼워지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과 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이 찢어지는 대동맥박리증 같은 위험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급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젊은 환자들은 혈압약을 한번 복용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꺼리게 되는데 혈압약은 중독성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문가 진단으로 혈압이 정상범위로 돌아왔다고 판단되면 약물치료는 중단할 수 있다. 혈압 상승 원인이 식습관이나 비만이면 식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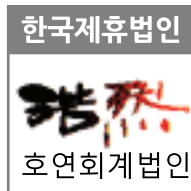
관리와 체중 감량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음식은 싱겁게 먹어야 하며, 지방질은 줄이고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 적정 체중 유지를 위해 걷기, 조깅 등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도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게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도 바람직하다.

“2030 젊은 고혈압 증가, ‘비만’과 ‘스트레스’가 원인”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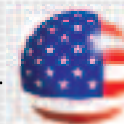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 휴람은 상담-예약-검진진행-사후관리를 보호지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 지금 상담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결정해 보세요!!



■ 휴람 건강검진 이벤트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4시간 :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60만원 ~

- 당일종합검진 +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9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남] 경동맥초음파, 뇌MRI, 뇌MRA
- 숙박종합검진 + [여] 뇌MRI, 뇌MRA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22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뇌MRI, 뇌MRA, 심장 CT,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 [남] 갑상선초음파 [여] 폐CT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370만원 ~

-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조영CT, 호르몬검사, 호모시스테인(중풍, 심혈관질환 인자)

휴람건강검진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논현동 학동역)
- 강남병원(용인시 신갈동 기흥역)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물품세트, 죽등을 제공합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한국방송은 티보플레이로 보세요

티보플레이로 전환하시면
지금 보시는 한국방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855-826-4636
855-TBO-INFO

2023.

11.12.

~ 2024.

02.10.

제22대 [신고·신청]
국회의원 재외선거

The 22nd Overseas
Election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합니다.

To vote for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voters shall make a report and register as overseas eligible voters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Period of reporting an overseas absentee

2023.11.12.~ 2024.02.10.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기간

Period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alter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n overseas voter

2024.02.10. 까지

By 2024.02.10.

투표기간

Voting Period

2024.03.27.~ 04.01.

매일 08:00 ~ 17:00 every day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The voting period may vary from one diplomatic mission to another.

신고·등록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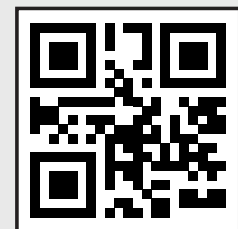
How to make a report and register as overseas eligible voters

인터넷(ova.nec.go.kr)

Via Internet website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Go to the Report and Register page



공관방문·순회접수

Visit a Korean Embassy or Consulate in person or file a written application in person with a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s employee who travels around its jurisdiction

우편·전자우편

By mail or E-mail

※ 해당 공관에 문의

Please contact the relevant Korean Embassy or Consulat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for the Overseas Election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k.nec.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and Overseas Koreans Agency (oka.go.kr).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